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- 운동권 「정세분석 잡지 쏟아진다」 - 비판적 현실인식...혁신·노동 현장 목소리 담아 「흐름」「동향과 전망」 등 10여종/지식총 겨냥 각종 성명서 등 수록/지난해 이후 창간 봄...계간·무크지 등 다양(조선일보 1월13일 崔球植기자)
- 올 첫 저작권 시비-미해금작, 법적으로 모호...「갑오농민전쟁」/협상결렬, 형사고발까지...「대국의 흥망」/납월북작가 저작권법 마련...기획 신중하에(중앙경제신문 1월13일 朴海鉉기자)
- 여류시인 金水鏡씨 문학지 2종 잇달아 인수-「외국문학」에 이어 「문학정신」도/두번째 것은 未堂부탁으로 맡아/정치사회학 등 포용...독자층 다변화로 성공 자신(경향신문 1월16일 安健燦기자)
- 慎達子 수필집 「백치애인」 신춘 서점가 돌풍-여성사회 폭발적 인기, 출간 3개월새 10만부/78년작 동명소품...원작가 잊혀진 채 인구 회자/딸 책갈피서 발견...신작 함께 엮어(조선일보 1월17일 崔球植기자)
- 金源一씨 장편 「마당깊은 집」 출간-자전적 중편소설 3편으로 구성/전쟁 때 망가진 삶을 사실적 묘사(한국일보 1월17일 金薰기자)
- 해외 유명사, 영·불역본 요청 잇따라-선집 등 작년부터 본격화/문예진흥원·펜클럽 주도/원로·

- 소장작가 망라...현지 저널서도 서평 활발(조선일보 1월17일 金明煥기자)
- 중국고적관계서적 2권 출간-구석기시대 연구성과 정리 「中國의 考古學」/유적·유물 발굴에 얹힌 이야기 「중국고적발굴기」(중앙경제신문 1월17일 朴海鉉기자)
- 대학생 낙서시집 불티-「슬픈 우리 젊은 날」 2권 베스트셀러/재치와 풍자 현장성 돋보여/지난해 나온 1권 열흘만에 5천부 팔려(경향신문 1월17일 孫東佑기자)
- 완간 서두르는 「만화 韓國史」-대학교수 만화가 李元馥/학자들 고증받아 正史 중심으로 엮어 「만화 시대」/대비 교양만화 연구회구상(중앙일보 1월17일 李憲益기자)
- 우리 문학에도 「현대판 고전」 늘어-최인훈 「광장」 비롯 소설이 주류/「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」 최고 60판 거듭...시·수필·평론도 한몫/70년대 후반 대거 등장 「민족 문학 이룩기」 반증(한겨레신문 1월17일 조선희기자)
- 81세 伊 모라비아, 끝없는 창작-최근작 「로마로의 여행」 또 베스트셀러로/「죽음이 자유박탈할 때까지 계속」/60년 동안 「성적 강박관념」 추구(한국일보 1월18일 黃永植기자)
- 「검정교과서소송」 관심집중-출판사이권화...밀실심사에 의혹/심사기준·위원·과정 등 공개 요구(한국일보 1월18일 金龍善기자)
- 북한관제서적 출간 갱점화-당국, 과장·일방적 찬양선전 인정 못해/출판계, 단속은 곤란...개방정책에도 역행(한국경제신문 1월20일 李汀桓기자)
- 북한원전 출간봄 새 고비-「김일성선집」 등 3종 압수/「이적」기준 모호...문제 계속 남아/마구잡이·겹치기 출판 개선돼야(중앙경제신문 1월20일 朴海鉉기자)
- 「성철스님 범어 英譯 힘들었어요」-「가야산의 메아리」 출간한 미국인 배리씨/심오한 사상 담겨 불가피하게 의역/불교자혜 서구에 알리려 번역 결심/전통문화에 반해 체류 20년...법명까지 받아(경향신문 1월19일 신연숙기자)
- 북한서적 출판 9명 연행-검찰 「통일논의 틈탄 이적 암단」/「김일성선집」 등 3천여권 압수...보안법 적용 검토(조선일보 1월19일)
- 북한관계서적 기습 압수-「민중의 바다」 등 3천여권...출판인 9명 연행/출판단압 중지 촉구, 「한출협」 항의 성명(한겨레신문 1월19일)
- 북한서적 3종 집중단속-서울지검 출판사대표 등 9명 연행/「민중의 바다」 등 3천5백권 압수(한국일보 1월19일)
- 북한책 출판 등 3명 영장-서울지검 일체수색 3종 3천여권 압수/출판인 석방촉구 성명...출판문화운동협의회(동아일보 1월19일)
- 출판가 「북한원전」 압수 찬바람-「김일성 선집」「민중의 바다」「북한현대사」 등 3종 당국 「혁명선동 위험수위」 북한바람 쐐기(조선일보 1월20일 崔球植기자)
- 출판사 전문인력난-등록사 4천 3백여개...소요인원 2만여명/4개전문대에 출판학과 개설/91년까진 심각한 부족 겪을 듯(서울경제신문 1월20일 姜升遠기자)
- 북한관계서적 출간 갱점화-당국, 과장·일방적 찬양선전 인정 못해/출판계, 단속은 곤란...개방정책에도 역행(한국경제신문 1월20일 李汀桓기자)
- 북한원전 출간봄 새 고비-「김일성선집」 등 3종 압수/「이적」기준 모호...문제 계속 남아/마구잡이·겹치기 출판 개선돼야(중앙경제신문 1월20일 朴海鉉기자)
- 「성철스님 범어 英譯 힘들었어요」-「가야산의 메아리」 출간한 미국인 배리씨/심오한 사상 담겨 불가피하게 의역/불교자혜 서구에 알리려 번역 결심/전통문화에 반해 체류 20년...법명까지 받아(경향신문 1월19일 신연숙기자)
- 문 1월20일 孫東佑기자)
- 북한서적 기습압수에 「반대 비상」-출판계·학계·야권 「잣대없는 상징적 탄압」 성명 발표/북방정책 이율배반성 지적...국보법 폐지 등 촉구(한겨레신문 1월20일 신연숙기자)
- 출판가, 북한책 「제재」 찬바람-검찰, 「민중의 바다」 등 압수의 뒤안/당국, 「주체사상 찬양 등 北실상 왜곡」/출판사, 「동질성회복 기여...다른 뜻 없다」(스포츠서울 1월23일 박찬기자)
- 「세계 최대 중국어사전 곧 나온다」-고려대민족문화研, 중국 대학과 공동작업/편찬기간 16년에 35만명 참여/공청회 거쳐 내용·단어 다듬기도(중앙일보 1월23일 李憲益기자)
- 「우리 문학사의 빈칸 메워야죠」-「原本 한국현대현실주의 비평선집」 펴낸 金允植교수/해방서 분단 까지 「좌익」평론 모아/오늘의 민중 문학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국내 첫 소개...「인형의 계곡」(국민일보 1월24일)
- 음악학술지 「낭만음악」 첫선-李康淑씨 등 주축...방법론 집중연구/「민족음악 문화창달에 기여」(서울신문 1월25일)
- 「남북자료 뒤틀림...북한 이해 어려움」-김일성 경력 책마다 엇갈려 혼란/북한 접근·출판 홍수 속 정확한 자료제시 필요(한겨레신문 1월25일 고승우기자)
- 「페미니즘 문학 뿐만 아니라...」-85년 태동 이후 창작·평론집 잇따라 출간/독특한 경험을 여성적 시각으로 표현/가부장적 문화에 대응하는 「여성문화」 회복 주창/여성해방운동 차원서 출발...공감대 얻는 게 과제(중앙일보 1월25일 李京哲기자)
- 「서정적 리얼리즘 담았다」-장편 「마당깊은 집」 펴낸 김원일씨/소설적 픽션 배제 「인간의 정한」 그려/문학적 여과 거쳐야 “오래 남는 소설”(스포츠서울 1월26일)

- 경제신문 1월24일 姜升遠기자)
- 새범주 빨치산문학, 「통일지향」 길잡이로-「분단뿌리 드러내 바른 역사인식 유도」 긍정적 평가/금기 허문 「남부군」「태백산맥」 등 인기 여전/호기심 차원 넘어 「문학사적 자리매김」 단계(한겨레신문 1월24일 조선희기자)
 - 「대형서점 호황...발디딜 틈 없다」-연말 연시 고객 부쩍 늘어 매출액도 최고 기록/훌륭한 문화공간 「거리의 도서관」으로 한몫(동아일보 1월24일 宋煥彥기자)
 - 신춘서점가 신선한 새바람-40년대 3대시인 吳章煥 작품 총정리...「吳章煥전집」/카프문학의 대표적 인물 林和 시 복원...「현해탄」/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국내 첫 소개...「인형의 계곡」(국민일보 1월24일)
 - 음악학술지 「낭만음악」 첫선-李康淑씨 등 주축...방법론 집중연구/「민족음악 문화창달에 기여」(서울신문 1월25일)
 - 「남북자료 뒤틀림...북한 이해 어려움」-김일성 경력 책마다 엇갈려 혼란/북한 접근·출판 홍수 속 정확한 자료제시 필요(한겨레신문 1월25일 고승우기자)
 - 「페미니즘 문학 뿐만 아니라...」-85년 태동 이후 창작·평론집 잇따라 출간/독특한 경험을 여성적 시각으로 표현/가부장적 문화에 대응하는 「여성문화」 회복 주창/여성해방운동 차원서 출발...공감대 얻는 게 과제(중앙일보 1월25일 李京哲기자)
 - 「서정적 리얼리즘 담았다」-장편 「마당깊은 집」 펴낸 김원일씨/소설적 픽션 배제 「인간의 정한」 그려/문학적 여과 거쳐야 “오래 남는 소설”(스포츠서울 1월26일)

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 양성!

편집인



출판

- 단행본 ○ 전집 ○ 잡지
- 교양도서 ○ 참고서 ○ 사전
- 교과서

신문

- 일간신문 ○ 주간신문 ○ 월간신문

잡지

- 교양지 ○ 전문지 ○ 종합잡지
- 정기간행물 ○ 사보

1기생 96% 취업 확정

2기생은 2월 28일 이후 취업 추천할 계획임

3기생 모집

2월 10일 ~ 2월 28일

• 취업보도실 : 671-8317

한국서적디자인학원
672-1841, 672-1842

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